# 수도권까지 2시간 대 걸린다…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착공

**총연장 174.6㎞, 7조 974억 투입**
**김천~거제, 진주~마산 연결**
**2031년 목표… 지역산업 회복 견인**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6일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뉴시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본격 건설을 알리는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경북도지사와 경남도지사, 정부 관계자와 사업 시행자,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주민 등 약 400명이 모여 영남 서부권의 숙원 사업인 고속철도 착공을 축하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총연장 174.6㎞ 구간에 총사업비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기간 철도망 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완공되면 고속열차(KTX·SRT)가 김천역을 거쳐 거제까지, 진주역에서 마산역까지 달리게 된다.

개통 후에는 고속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와 수도권이 2시간 40분대로 연결된다. 하루 25회 운행 예정인 고속열차는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높여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 13조 5000억원 ▲부가 가치 유발 5조 8000억원 ▲취업 유발 8만 6000명 등이 예상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파격 단축했다. 2023년 6월 총사업비 증가로 필요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약 9개월 만에 끝냈다.

지난해 12월 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경유 지자체를 직접 방문·설득하며 긴밀히 협력해 1~2년이 걸리는 필수 법정 절차를 단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런 선제적 대응이 오늘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됐다.

현재 전체 14개 공구 가운데 10개 공구가 시공 계약을 완료했다. 10공구는 기본 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공구는 상반기 중 실시 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공고된다.

착공 이후에는 각종 관계 기관 인허가 협의와 함께 국가철도공단이 보상 계획 공고·열람, 감정 평가업체 선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 보상 협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를 순차 진행한다. 도는 철도 개통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역세권 개발을 병행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난 6일 도청에서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경북도, 제2차 공공기관 유치 활동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委' 출범식**
**총 21명 구성… 2년간 컨트롤타워**

경북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위원 21명과 실·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유치위원회는 과학과 산업,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출범식 당일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선출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북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 첨단산업 집적 효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단계에 걸친 검토를 진행했으며, 산업 파급 효과가 큰 40여 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양산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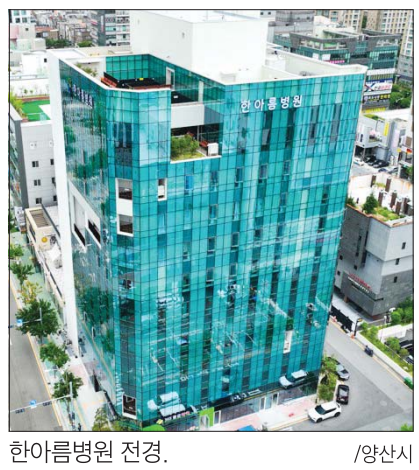
**물금읍 한아름병원, 야간·휴일 진료**

양산시가 6년간 이어진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

양산시는 물금읍 한아름병원이 지난 2일 경남도에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웅상중앙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약 6년 만이다. 그동안 신규 신청 의료 기관이 없어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이 계속됐으며 양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소아 인구 비율과 진료 수요가 높아 시민 불편이 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밤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경우 다음날 아침까지 해열제로 버티며 병원 개원을 기다리는 '오픈런' 현상을 겪거나, 경증 질환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했다.



한아름병원 전경. /양산시

한아름병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2년마다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진료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동일 건물 내 있는 '365물금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돼 진료부터 처방 조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산(경남)=장선호 기자 metrobusan2601@

## 포항시, 소상공인 1200억 특례보증 시행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조성**

포항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과 함께 총 12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이 시행된다.

협약에는 iM뱅크 28억원, 하나은행 6억 5000만원, KB국민은행 4억원, NH농협은행 4억원, 신한은행 3억원, 케이뱅크 2억원 등 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모두 50억원을 출연했다.

포항시 역시 금융기관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출연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청년 창업자와 2인 이상 다자녀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울산시, 올해 녹지정원 시책 본격 추진

**관계 기관 회의 열고 논의**

울산시가 '울산, 세계가 머무는 정원의 도시'를 목표로 올해 녹지정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오후 2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산악문화관에서 '2026년 녹지정원 분야 시책 및 도심녹화협의체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녹지·공원·산림·정원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현안 사업 토의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녹지정원 시책은 ▲도심 속 치유 공간 확충을 위한 생활녹지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드는 생태정원도시 울산 조성 ▲울산의 자연을 담은 치유 명소, 울산수목원 조성 ▲산업과 정원이 어우러진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담았다.

시는 녹지 기반 확충으로 시민의 정서 안정과 휴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 등을 펼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지역 이모저모

### 하동군
**오늘 '별천지 차문화관' 개관**

하동군이 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에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HADONG TEA POCKET)'을 연다.

이번에 조성되는 차문화관은 하동 야생차의 가치와 차 문화를 도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차 문화를 부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

지상 2층 규모로 꾸며진 이 공간은 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에서는 하동 차를 직접 시음할 수 있는 티라운지와 하동 차의 역사·가치를 다루는 상설 전시가 마련되며 2층에서는 하동 차와 다구를 전시·판매하는 티 편집숍과 다양한 티클래스가 진행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영주시
**故조영래 상병 유족에 무공훈장**

영주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고(故) 조영래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는 전시 혼란으로 전달되지 못한 공훈을 확인해 유족에게 되돌리는 절차로 지역 보훈 행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는 지난 6일 조영래 상병의 유족에게 77년 만에 전투 공적이 확인되어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번 전수는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따라 진행됐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경남대학교
**지난해 60.4% 취업률 기록**

경남대학교가 2025년 취업률 정보공시 자료에서 60.4%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졸업생 2500명 이상 기준으로 집계된 이번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번 성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대는 '학생 성공'을 중심 가치로 전공 교육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경남=이도식 기자

### 김해시
**전국문화체전 2개 준비 박차**

김해시가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5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과 2025년 전국소년체전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총 4만 8000여명의 선수단과 8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4월과 6월 개최되는 두 대축전을 한층 발전된 '문화체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도내 6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